



충청북도 의회 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63회 의회(임시회)

도정 주요사업 현장 방문 및 현안 심의

충청북도의회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현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의정모니터·도의원 합동연찬회, 국회주관 전국 지방의회 의원연수 참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선포식, 유니세프 협력도 협약식 등 비회기중에 있었던 사항과 제264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의정비심의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매입



▲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및 기타 현안을 심의하고 있다.

장소와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부지 등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27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와 바이오코리아 2007행사를 참관하

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체 직무연찬과 교육강도 실현계획과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청북도의회 오장세의장이 발의한 「1시·도 1법학 전문대학원유치」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1시·도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존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귀하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강력한 중앙 집권과 정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가 중앙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육자치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데 대하여 전국 시·도의회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교육부에서 제안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무변촌’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면서 더 한층 지역균형발전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간, 계층간의 법률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무변촌” 시·군·구가 무려 122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별 균형 설치가 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변호사 1인 대비 국민의

수가 5,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은 그동안 관심 있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법률소의 지역의 해소”와 “법률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변호사의 양성을 주장하게 하였으며, 우리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무변촌’의 해소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시·도별 균형적 안배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송부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 래

1.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을 시·도당 1개교 이상 설치 되도록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30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동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

● 회 기 : 2007. 10. 15. ~ 10. 25. (11일간)

일 시	부의안건
10. 15.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64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기타 안건 처리
10. 16. (10:30)	▶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산업경제위원회 • 건설문화위원회
10. 17. (10:30)	▶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10. 18. ~ 10. 22	▶ 본회의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10. 23. ~ 10. 24.	▶ 본회의 휴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10. 25. (11:00)	▶ 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위원회명	주요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 기타현안처리
행정자치위원회	- 충청북도 시·군 균형발전과 지방역대로 관련 도정질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연찬회 실시
교육사회위원회	- 도정질문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주요사업 현장 시찰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건설문화위원회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주요사업 현장 시찰 -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개 회 사

조속한 수해복구와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힘써주시길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50여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잦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제천 일부지역에 수해피해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수일간 계속해서 내린 비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이었지만 무덥고 갇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 사업장과 민생현장 등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의 농업과 농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 명품도 충북” 실현 등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

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충청권 3개 시·도가 상생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충청 번영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어 충청권이 한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 그리고 민생과 관련한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더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 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포근한 정취를 느끼면서 고향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중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의 개선방안

송 은 섭 위원장
(건설문화위원회)

본 의원은 대표적 남비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느 지역에서나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도에서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권 제2광역매립장 조성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진천군과 음성군이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양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임지로 선정 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것을 부탁한다.

진천군과 음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5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군 지역의 쓰레기 매립시설은 농어촌폐기물로 분류되어 국고보조금이 개소당 정액 15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시 지역은 시설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 단위의 국고지원액이 적은 불합리한 정책을 개정하여 군 지역의 지원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특히 광역조성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부와 충청북도 차원에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실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여 주시고 도민의 안정과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 8월 27일 ~ 9월 3일 중 4일간 옥천·제천·증평·청주를 순회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넓히고 도의원들과 의정모니터 요원 상호간에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실현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9월 17일 사천동 성심요양원을 방문하여 요양자를 위로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64회 의회(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키로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11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과 제2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10월 임시회로 연기됨에 따라 제263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어 제2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제2차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며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의된 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을 시찰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

9월 11일 제 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 현안심사

9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동시 상정 조례안 대안 처리



▲ 선진지 벤치마킹 2007년 9월 5일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송도 국제도시 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열린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 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그리고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을 전개하였다.

먼저, 9월 12일에 열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을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인 「학교용지 확보법」 등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위원의 6인의 의원 발의한「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여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 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에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연면하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안이 처음으로 동시에 상정되어 대안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동일조례의 개정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안을 제출하고 동시에 심사를 진행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으로 대안처리는 충청북도 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자치입법의 활성화와 자치입법에 대한 의원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9월 14일에 열린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남부권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 및 연구·보전을 위한 내수면연구소 육천지소 신축, 산림환경연구소가 임업시험·연구를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임업연구·시험포 부지매입, 그리고 청주지역의 경찰행정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가칭)청주남부경찰서 신설용 국·공유재산 교환 등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계획안을 현지 확인을 통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질의, 토론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그밖에 민선 4기 제2차년도 핵심사업인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강도 실현계획과 진천·음성 혁신도시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도정의 혁신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1박 2일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기파주영아마을에서 현지방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충청북도 관계자로부터 당면현안사항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새로 시행되는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제천 초등학교 신설 민원사항과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 9월 12일에는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관련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안건별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 방식으로 전환되어 그간 각종 체육대회 시 지급하던 격려금품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배상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학원 단위시설 기준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 등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간 23:00로

제한되던 학원수업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24:00까지 연장하는 등 학원의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들의 학습여건향상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조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충청북도 관계자로부터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제도시행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는 제천 초등학교신설 민원사항 및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안전대책 수립을 주문했으며,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 및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간담회

9월 12일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9월 12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심사



▶ 간담회

9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운숙)는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지난 9월 11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도정질문 의원으로 권광택의원(청주 제6선거구, 한나라)을 선정하였다.

이어 상임위 소관인 경제투자본부의 당면현안으로 충청권 경제협업체 구성 및 운영, 기업투자유치 실적 및 이전 기업 재정지원계획,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 수립현황, 아마나시현과 자매결연 15주년 행사 및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체결 추진, 남부 및 북부지역 LNG 확대공급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또한 농정본부로부터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계획, 남북 농업교류협력 조례 제정,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 조례 제정, 2007년산 공공비축 미곡매입,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개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7월 12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권광택의원(청주 제6선거구, 한나라)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 조례안 심사

9월 12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건설문화위원회

바이오코리아 2007 전시장 참관 등 현안심사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운전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바이오코리아 2007행사에 참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충청북도 운전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운전자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주기, 정밀검사, 사업자 지정,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청주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며, 운전자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청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하되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저공해 자동차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며,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먹는 샘물 허가 등 지역지하수관리의 효율성과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반기문 전시관조성, 제1회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제46회 충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등에 대하여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제1회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장현지를 찾아 임원 및 선수단을 격려했다.

현지방문 ▶

9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된 바이오코리아 2007행사에 참석.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현지방문

9월12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단 격려 후 우승을 다짐하고 있다.

주요처리안

1.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 [학교용지법] 등에 관한 특례법(2005.3.24)과 [지방자치법](2007.5.1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의 문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제정 및 조문의 정비.
-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 등.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2007년 9월 3일 연만홍의원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7년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위의 2건을 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9.12)상정, 심사한 결과 2건을 통합 ·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개정(2001.1.26)에 따라 위원 자격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2006.12.28)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변경 · 도의원, 3급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자 : 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변경 등.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대청호 주변의 수산자원 개발을 통한 내수면 어업발전 및 수중 생태계 보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수면연구소 육천지소를 신축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입업시험 · 연구를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험포 부지의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연구소에 입업한 사유지를 분수국유림 수의분배금으로 매입하며 청주지역의 경찰행정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신설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도와 경찰청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호 교환 취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산취득 : 내수면연구소 육천지소 신축.
- 재산취득 : 입업 연구 · 시험포 부지 매입.
- 재산의 교환 : 국 · 공유재산 교환.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로의 전환 · 설립을 위한 자치 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개정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 · 설립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정 「전자정부법」(07. 7. 4일 시행)에서 그간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법」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 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 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 · 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임.

5.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제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체육대회 및 표창의 종류.
- 부상지급 기준, 표창대상자 추천절차 규정.

6.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 의무와 학원 단위시설 기준 및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 · 설비기준 등을 규정.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공무원채 정보중재제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조례설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공무원채 정보중재제 폐지.

8.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 이유]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 · 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제개편에 따른 실 · 분부장 명칭을 변경.
-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을 정비.
- 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함.
-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 등.

9.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 이유]

•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BIG충북마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 사용신청 및 사용권 부여 방법 등.

[수정 이유]

- 제2조제3호에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추가.
- 제2조 내지 제11조, 제13조의 “BIG충북마크”를 “도 품질인증마크”로 각각 수정.

한미FTA 협상과 우리의 농업



박 중 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지난 4월 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어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아직 국회의 비준을 남겨 놓고 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한미FTA가 비준이 될 것은 뻔하다. 이에 한미FTA협상에 따른 우리의 농업현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도민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보완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수입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 보전장치 마련을 위하여 수입피해 보전대상 품목 확대와 피해 보전비율 상향조정, 둘째, 경쟁력향상 추진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셋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를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규모 확대와 농가의 경영 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기술개발 확대와 고품질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넷째, 농촌을 농업의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기반을 확충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농가에 직접지원, 그것도 현금으로 지원한다며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첫째, 기준가격을 현재수준(과거 5개년 평균의 80%)으로 유지한다는 것

은 피해액이 80%로 하락되기 전까지는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정방식을 현재의 가격 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생산규모 확대와 생산비 상승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셋째, 정부가 지원 품목을 '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품목 선정 기준을 준용하여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행지원위원회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품목을 협의해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될지 어디까지 확대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넷째, 지원기간이 한칠레FTA를 준하여 협정발효 후 7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예상되는 7년 이후는 정작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미FTA체결되면 농업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비준 전에 충분한 검토

가 있어야 한다.

경쟁력 제고보다는 선진국형의 농업정책인 경쟁력 제고와 보조지원을 동시에 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 특히,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도 국민과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고품질의 안전하고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농촌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C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높이자



김 법 기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공공기관의 성과를 관리하는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에게 미치는 편의 또는 정책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성과평가 시스템은 산출물(output)에 대한 평가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 고객에게 미치는 최종결과(outcome)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더구나 평가가 어려운 정책수립 등 질적인 부분에도 성과평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공식사회 내외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일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과중심의 행정부문의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청원군이 무능공무원 퇴출에 적극적인 열정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며 충청북도 무능공무원 퇴출을 위한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첫째, 무능 공무원 퇴출 기준이다. 하여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 퇴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근무태도가 불량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도록 행정적, 업무적으로 많은 지원과 측정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인 스스로 퇴출 대상에 포함이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근거가 충분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면 그

것은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상존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우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약속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 장치를 만들고 이러한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 해시키며 그래도 위반하면 퇴출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을 권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지급되어 있는 컴퓨터(PC)에 대한 체계적 관리다.

개개인에게 지급된 컴퓨터 관리와 과학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면 업무태도 불량에 관한 문제는 다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행각한다.

예를 들어 비업무사이트 접근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컴퓨터작업의 관리, 업무시간에 게임, 이메일의 외부 불법 유통, 메신저 등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이동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타 지역의 기관과 기업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청북도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최근 청주시의 시간의 수당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예를 보아도 공무원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가 깨지면 주위의 것들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공무원의 관행적 약속도 도미노 이론과 동일하다. 누군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덩달아 가게 마련이고 이것이 고질화되면 관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에서 퇴출 공무원을 가려낸다면 가능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고지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선행하고 그래도 규정을 어길 경우 일벌백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PC를 관리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북도의회 어린이 의회교실 개최



▲ 10월 2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충주 예성초등학교와 제천 의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오장세)는 10월 2일 2007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충청북도의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어린이 의회교실은 충주 예성초등학교와 제천 의림초등학교 학생 94명이 참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입교식, 의정단 선거, 본회의 안건처리(조례안,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의 의사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체험하였다.

또한, 어린이 의회교실은 의정단 선거, 의안 찬반 토론, 발표 등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적 역량을 키우고 더 나아가 도민의 봉사자로서의 꿈도 키워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품소 배울 수 있는 교육과 추억의 장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장세 의장, 심

흥섭 부의장, 이종호 운영위원장, 김종근 교육국장, 신성기 예성초등학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어린이 의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린이들을 위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최횟수와 참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4분기 도민교육 계획

과 정 명	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 일수	가수 (기)	인원 (명)
재래시장 지도자반	재래시장번영회 임원·시장상인	10. 4 ~ 10. 5	2일	1	40
중소기업 재개발반	중소기업 경영인·종사자	10. 8	1일	1	40
사회복지 종사자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	10. 12	1일	1	90
주민 자치위원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1. 1 11. 2	1일	2	300
통·리· 반장반	신규 임명자	11. 13	1일	1	200
복숭아 재배반	복숭아재배 및 희망농가	11. 8 ~ 11. 9	2일	1	50
배재배반	배 재배 및 희망농가	11. 15 ~ 11. 16	2일	1	40
포도재배반	포도재배 및 희망농가	11. 22 ~ 11. 23	2일	1	40
기계화 영농사반	שב반기 기계화영농사반 이수자	11. 26 ~ 11. 30	2주	1	40

교육신청 및 상담문의

• 도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

☎ 043)220-5282~5/220-5292~7

• 시·군 : 도민교육담당부서

• 읍·면 : 총무 및 산업담당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loti.cb21.net>

건강보감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성 구진과 인설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수포 및 장액성의 삼출액과 가피를 보이는 급성 증상으로 진행된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소양증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해서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되며 가려움-긁기-가려움의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악화되며 더 지속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주름이 뚜렷해지는 태선화 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임상 양상은 긁거나 문지른 결과에 의해 발생하며 밤에는 소양증이 더욱 심해져 수면장애를 일으킨다. 급성기에는 소양증이 심한 홍반성 구진과 수포가 발생하는데 긁으면 삼출성 병변이 발생하며 이차 감염도 흔히 일어납니다. 아급성기에는 찰상(excoriation), 홍반성 혹은 인설이 덮인 구진과 판이 발생하며 만성기에는 반복된 긁기로 인해 태선화가 일어납니다.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기오염, 주거환경의 변화로 항원에 대한 노출의 증가, 모유 수유의 감소, 소아기 감염 질환의 감소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아토피를 '태열'이라고 하여 선천적으로 피부에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는데 체질적 특성에 따라 피부의 열을 다스리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최근에 아토피를 치료하는 한의학에서는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같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체질적 특성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한의학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특징이다.

태음인

태음인은 전체 체질의 50%를 차지하므로 아토피 환자도 역시 태음인이 제일 많다. 사상의학적으로 태음인은 간대폐소(肝大肺小) 하기 때문에 내부로 흡수하는 대사를 하는 간 기능이 왕성하고, 외부로 뽀아내는 대사를 하는 폐 기능이 약하다. 따라서 이로 인해 내부의 기가 모이기만 하고 순환이 안되고 뭉쳐져 열(熱)이 쌓이고 외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를 조열(燥熱)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태음인에서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태음인의 아토피는 부족한 폐의 기운을 보충해주어 속의 열을 밖으로 뽀아내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러한 약제들에는 취뿌리, 울무, 도라지, 마, 녹용 등이 있다.

태양인

태양인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이므로 태양인 아토피 환자도 드물다. 사상의학적으로 태양인은 태음인과 반대인 병리기전을 가진다. 즉 폐대간소(肺大肝小)하기 때문에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려는 기능이 강하고 안으로 끌어 모으려는 기능이 약하다.

그러므로 태양인의 아토피는 부족한 간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치료법을 원칙으로 하는데, 오가피, 모과, 솔잎, 포도 등으로 태양인의 정기인 흡취지기(吸聚之氣)를 도와주어야 한다.

소양인

전체 인구의 30%가 소양인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가장 기능이 강하고 신장기능이 약한 비대신소(脾大腎小) 체질이며 선천적으로 화(火)와 열(熱)을 많이 타고나 기운이 위로 상승하려고만 하고 아래로 하강하려는 기운이 약합니다. 따라서 발산되지 못한 횡격막 위로 몰린 열이 소양인의 아토피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족한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여 기운을 아래로 순환되도록 하고 열을 꺼주고 진액을 보충해주어 소양인의 정기인 음침지기(陰沉之氣)를 도와주는 것이 소양인 아토피 치료의 원칙이 된다. 이때 사용되는 약제에는 숙지황, 생지황, 산수유, 산

딸기, 목단피, 백복령, 석고 등이 있다.

소음인

전체 인구의 20%가 소음인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소양인과는 반대로 신장기능이 강하고 비장기능이 약한 체질이므로 선천적으로 소화기능이 약해 영양분의 흡수능력이 떨어지고, 양기(陽氣)가 부족해 말초 순환장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피부로의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아토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족한 양기를 보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소음인 아토피 치료의 원칙이 된다. 이때 사용되는 약제에는 인삼, 삼주뿌리, 계피, 황기 등이 있다.

이상으로 아토피의 사상의학적 체질분류를 하였는데, 아토피의 한방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호흡의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토피 환자들의 특징은 발병부위의 불편한 증상 외에도 복부나 등, 어깨 부위에도 건조증상과 피부색이 건강한 곳보다 어두운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할 때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곳에만 치료의 중점을 두는 방법보다는 전체 환자의 체질적 증상에 맞추어 피부호흡을 강화시키면 아토피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의원동정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9월 13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설성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축하 및 주민의견 수렴



◀ **강태원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

9월 1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 “지방의원 유급제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 참석, 현안토론 및 주민의견 수렴



◀ **연만희 의원**
(증평 제2선거구)

9월 21일~22일 증평군 보강천 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인삼골 증평문화제에 참석, 축하 및 주민의견 수렴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8월 30일~9월 2일 영동군 난계국약당 일원에서 개최된 제40회 난계국약축제에 참석,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심승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9월 21일 충주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충청북도자활다짐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9월 16일 옥천 이원중학교에서 열린 제30회 교육감기 양궁대회에 참석,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9월 6일부터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2007 충북재래시장박람회 참석 및 관계자 격려



◀ **최광욱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

9월 15일 제천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제천지회 가족동요부르기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이대원 의원**
(청주 제2선거구)

9월 21일 복대동 가정시장에서 열린 재래시장 love family day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9월 15일 보은군 벼들공원에서 열린 제3회 보은 한우축제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9월 29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제5회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9월 4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07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승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9월 18일 행복충북은동기 전시식 및 충북교육감기 차지 초·중·고·육상경기대회 개최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9월 14일 청주시 개신당에서 실시된 성신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9월 14일 괴산군민회관에서 실시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김하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9월 8일~9월 단양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 참석, 참가자 및 관계자 격려

〈말풀이 세상풀이〉

고복격양(鼓腹擊壤)과 제왕의 덕

격양가(擊壤歌)는 농부들이 근심 걱정 없는 태평한 세월을 즐기며 부르는 노래다. 원래는 ‘땅을 치며 노래한다.’는 중국 고가(古歌)의 하나로, 요(堯)나라 때부터 불리어 왔다고 전해진다. 현재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격양가를 부른다.”하면 풍년이 들고 민심이 후한 태평세대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쓰이고 있다.

순(舜)임금과 함께 중국의 성군(聖君)으로 이름난 요(堯)임금이 어느날 민심을 살피고자 미복(微服)차림으로 거리를 나섰다. 한 곳에 이르니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立我丞民 / 莫匪爾極 (우리백성 살리심이/ 임의 덕 아님이 없네.)

不識不知 / 順帝之則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제왕의 법을 따르나니)

요는 아이들의 노래가 이럴할진대, 백성들의 살림도 태평하고 임금에 대한 숭양심도 높겠거니 하고 안심하였

다. 얼마쯤 가다가 이번에는 길가에 텅텅 주저앉아 노래를 부르는 노인을 만났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배를 두드리거나(鼓腹) 땅바닥을 치면서(擊壤)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日出而作 / 日入而息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잠자며)

鑿井而飲 / 田而食 (우물 파 물 마시고/ 밭 갈아 먹으니)

帝力何有於我哉 (임금의 힘(덕)따위야 나와 무슨 상관이오)

노인의 방자한 노래를 듣고 걸음을 멈춘 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배행하던 신하는 몸 둘 바를 몰랐다. 필시 임금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리라 짐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금은 평온한 낯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떠났다.

백성들이 굳이 제왕의 덕을 칭송하거나 느끼지 못하면서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세월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것이요,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의 옳은 길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바람이 맑고 시원한 곳에서는 공기의 고마움을 의식하지 못한다. 물이 깨끗하고 풍부하여 마시고 씹에 부족함이 없을 때 역시 그 고마움을

모르고 절실함을 깨닫지 못한다.

제왕의 덕도 이와 같아서 크고 넓어서 만백성이 고루 누릴 때는 그 고마움을 미처 느끼지 못하지만 백성들의 생활엔 부족함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으며 두려움이 또한 없는 법이다.

요순(堯舜)시대를 일러 태평성대의 본이라 하는 것은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들이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탐욕을 멀리하고 권력을 엄정히 행사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공과 덕을 내세워 백성들 앞에 자랑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금의 다스림이 청정한 물, 청정한 공기와 같이 백성들의 생활 속에 고루 젖어들어 근심 걱정을 잊은 채 각자의 생업에만 전력을 기울여 나갔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기구를 신설하고 부처별 홍보실적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면서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치적자랑에 열을 내왔다. 부풀린 치적으로나마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맥이 닿는 여론인사의 정권승계에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인가.

그러나 국민들은 냉담하다. 햇볕정책으로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고 그 덕

에 노벨상을 탔다는 전임대통령의 치적에도 박수가 별로 없었지만 현임 대통령 잘한다는 소리도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입만 열면 정부정책을 탓하고 정치를 타박한다.

럭비공처럼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시정방향(施政方向)이 진의가 의심스러운 일부 각료의 발언이 불신과 불안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잊고 살아가야 할 국민이 정치를 입에 달고 사는 셈이다. 백성들이 임금의 덕을 모르고 정치를 잊고 살아야 태평성대라 여겼던 요순시대의 ‘제왕론’이 무색할 지경이다.

예나 이제나 독재자일수록 국민의 감복과 추앙을 강요한다. 무능한 지도자일수록 치적자랑으로 실정(失政)의 책임을 덮으려 한다. 허기진 백성들에게 “위대한 장군님 덕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찬양가를 강요하는 복벽이 전자의 표본이다.

차기 대선(大選)의 틀이 서서히 잡혀가는 모양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덕을 논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한 채, 그저 생업이나 열중하며 격양가를 부르게 될지, 대선 결과가 조마롭다.

안수길(소설가:청주문인협회 회장)